

[조사연구]

화폐의 역사로 알아보는 비트코인 철학: 사토시 나카모토는 무엇을 보았는가?

최 재 윤* (성균관대학교)

초 록

사토시 나카모토는 현재의 화폐제도가 지나치게 많은 신뢰를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목화폐의 근본적인 한계를 제시하였다. 화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의 재정 상태와 군사력, 생산력에 따라 화폐의 가치는 크게 달라졌다. 화폐는 노동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자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변화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과 은은 대표적인 화폐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수천 년 동안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 정복 전쟁을 통해 막대한 귀금속(금, 은)을 확보하였고 이를 화폐로 주조하여 군인급여, 무역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로마 제국은 국채를 활용하여 전쟁 자금을 조달하여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은광을 확보함으로써 데나리우스 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귀금속은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나라에서는 철전을 준비 자산으로 하는 교자가 발행되면서 세계 최초의 지폐가 만들어졌다. 이후 교자는 금나라와 원나라의 화폐 체계에 영향을 주었고 몽골의 보초(지폐)는 제국의 무역망 내에서 국제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재정이 몽골의 화폐 가치를 뒷받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전쟁으로 인해 몽골의 지폐는 과도하게 발행되었고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과거 원나라의 보초에서 나타난 현상이 영국의 파운드, 미국의 달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통화의 지위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동시에 국제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하는 전쟁 비용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였다. 여기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재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은 국가나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 분산망과 프로토콜 규칙을 통해 희소성을 보장한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화폐 가치 훼손 문제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 성균관대학교 강사, e-mail: ky_1128@naver.com



[1] 서론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수립되면서 미국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었고 각국 통화는 달러에 연동되었다. 달러는 금을 기반으로 한 국제 통화이자 기축통화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 덕분에 큰 구매력을 가진 부국이 될 수 있었다. 이후 1971년 닉슨 쇼크로 금태환이 중지되면서 금본위제는 종료되었지만 달러는 여전히 석유 등 국제무역의 중심 통화로 기능하였다. 미국 외 국가들은 국제결제에 위해 달러를 벌어들여야 하지만 미국은 달러 자체를 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금융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연방준비제도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신용창조를 수행하였다. 문제는 미국 달러가 단순한 국내 통화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기축통화라는 점이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금융기관, 기업들은 국제무역과 금융거래를 위해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달러 수요를 바탕으로 많은 양의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고 미국 국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달러 자산 가치의 하락을 겪음으로써 경제적 희생양이 되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통제하고 은행이 신용창조를 통해 화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에 주목하였다. 현대의 금융체계에서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은행의 신용창조는 대출과 투자를 확대시키고 이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상승을 유발한다.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하면 버블이 형성되고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기관

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을 구제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세금부담, 물가상승, 통화가치 하락 등의 형태로 사회 전체에 분산된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하였다. 사토시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명목화폐와 달리, 누구도 임의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는 화폐를 설계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총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었으며, 발행 속도는 알고리즘에 의해 미리 정해졌다. 비트코인의 고정된 발행량은 중앙기관의 재량적 통화팽창을 배제하고 화폐의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2009년 2월 11일 P2P Foundation 포럼에 비트코인을 소개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래와 같이 현대 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기존 화폐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신뢰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이 화폐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하지만, 명목화폐의 역사는 그러한 신뢰가 반복적으로 깨져온 역사이다. 은행이 우리의 돈을 보관하고 전자적으로 이전해 줄 것이라고 신뢰해야 하지만, 은행들은 극히 일부의 준비금만 남긴 채 신용버블 속에서 돈을 대출한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은행에 맡겨야 하며, 신원 도용범들이 계좌를 털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2010년 7월 29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토크포럼(Bitcointalk.org)에서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중앙집권적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대신 암호학적 검증과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탈중앙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당신이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득할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류의 화폐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와 금융기관이 화폐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본래의 화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

적으로 나타났다. 사토시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현대 화폐가 안고 있는 신용창조, 물가상승, 금융위기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법이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 인류의 화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으며 현대 금융체계가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 교환수단으로서의 금과 은

에덴은 성경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이자 낙원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농업은 대략 기원전 10000~9000년경 신석기 시대 초기에 시작되었으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주변에서 작은 농업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야생 밀, 보리, 렌즈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가축화된 동물(양, 염소, 소 등)을 이용한 목축 병행하였다. 기원전 7000~6000년경 관개 체계가 도입되었다.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며 인구가 증가하고 공동체가 확장되었고 기원전 4000~3000년경 도시 문명으로 발전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위치해 농업이 발달하기에 적합한 환경에 속했다. 농업이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며 상업과 무역이 발전하고 관개 시설의 공동 관리로 협동 작업과 행정 조직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세기 2:15)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수메르인들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쟁기와 폭이 좁고 길쭉한 곡괭이가 만들어지면서

단단한 토양을 보다 쉽게 개간할 수 있게 되었고 경작 가능한 농경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가축의 힘을 이용하는 쟁기가 발명되면서 농업은 더욱 발전하였다. 소가 끄는 쟁기는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땅을 갈아엎을 수 있었으며 잡초 제거에도 효과적이었다. 특히 파종용 갈때기가 부착된 쟁기는 밭을 갈면서 동시에 씨앗을 뿌릴 수 있어 노동력과 시간을 크게 절약하였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농업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고 수메르 사회에 풍부한 잉여 생산물을 가져다주었다. 농업 생산의 증가는 운송 분야의 혁신으로도 이어졌다. 수메르인들은 바퀴 달린 짐수레를 발명하였고 소를 이용해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시작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풍부한 수자원, 발달한 관개시설, 그리고 다양한 농기구의 활용을 바탕으로 높은 농업 생산성을 달성하였다. 수메르인들은 밀과 보리, 아마, 대추야자, 양모 제품, 소금 등 다양한 잉여생산물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잉여생산물물은 도시의 시장으로 운반되어 다른 지역의 물품과 교환되었다. 생산량의 증가는 교역의 확대를 가져왔고 수메르인들은 더 많은 자원과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장거리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해상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돛을 이용한 범선이 발명되었고 운송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수메르의 상인들은 범선을 이용해 댈문과 마간을 거쳐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수메르 상인들은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을 교환하여 삼나무와 고급 목재, 금, 은, 구리, 청금석, 흑요석, 주석 등 메소포타미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귀중한 자원을 가져왔다. 범선의 발명으로 항해 시간이 단축되면서 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농업과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생산물을 교환할 동기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화폐가 만들어졌다. 기원전 3300년경 문자가 출현하면서 거래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수메르에서 사용한 화폐는 보리다. 보리는 생존에 필요한 가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보리를 교환수단으로 인정하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널리 사용된 화폐 단위이자 무게 단위인 셰켈도 여기서 유래하였다. 보리는 셰(she), 다발은 켈(kel), 보리 묶음(다발)은 셰켈(shekel)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통화도 셰켈이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인도양과 오만만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카우리 조개 등 소라껍데기로 제작된 등과 잔을 만들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조개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았으며 소라껍데기로 만든 등과 잔은 값비싼 물건이었다. 이 유물은 궁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으며 두 지역의 거래비용이 높아 소수의 특권층만 무역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개는 희소성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화폐로 사용되었다. 기원전 2천년경 상나라 때부터 조개를 화폐로 사용했다. 기원전 1600년 고대 중국의 은나라는 조개껍데기를 대표적 화폐로 사용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역 확대와 공급 증가로 희소성이 낮아졌고 조개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약 6000년 전 인류는 동광을 제련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아나톨리아 산악 지대(오늘날 터키의 아

시아 지구)의 에르가니 광산에서 채굴된 구리가 우르크(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로 운반되었다. 구리는 매장량과 채굴기술에 따라 채굴되는 양이 한정되었기에 희소성을 가지고 있었다. 기원전 3000년경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페르시아만을 따라 구리와 곡물이 대규모로 운반되었다. 기원전 2500년에는 신분을 과시하는 상징이 소라, 껍데기, 잔과 등에서 구리로 만드는 단지, 도구, 장신구로 바뀌었다. 이후 500년 동안 금속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구리로 만든 도구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구리가 귀했기 때문에 소, 곡물과 더불어 훌륭한 교환수단이었으나 기원전 2000년경 구리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치도 하락했다. 그러자 구리 대신 은이 교환수단이 되면서 화폐로서 사용되었다. 수메르 문명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은은 구매력을 보존하는 가치있는 화폐가 되었다. 기원전 1754년경 제작된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은이 화폐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자유인이나 노예에게서 증인이나 (서면의) 계약 없이 은, 금, 노예, 소, 양, 나귀,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받았으면 그를 도둑으로 간주해 사형에 처한다. (함무라비 법전 제7조)

사람이 상인으로부터 은을 빌려, 상인에게 밀 혹은 껌의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넘기고 상인에게 그의 토지에서 이를 경작하고 수확하도록 시킬 경우, 경작자가 재배한 밀 혹은 껌의 소유권은 땅주인에게 있으며, 경작자는 땅주인에게 지대로서 곡물을 넘겨야 한다. 그리고 경작자의 생계는 (경작자를 고용한) 상인이 부양해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 제49조)

상인이 곡물이나 은을 대여하였는데, 그가 그것을 대여하였을 때에 은을 작은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작은 되로 주었으나, 그가 그것을 회수하였을 때에 은을 큰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큰 되로 받았으

면, 그 상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잃는다.(함무라비 법전 제94조)

사람이 여행을 위해 은, 금, 보석, 기타 동산을 타인에게 맡기고, 여행에서 돌아와 이를 되돌려받 고자 하는데, 만약 재산을 맡은 이가 맡긴 재산의 전부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원소유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사실을 증명하고 재산을 맡은 이는 원주인에게 해당 재산 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함무라비 법전 제112조)

기원전 4000년경 고대 이집트는 대부분의 금을 주로 동부 사막과 나일강 상류 지역, 그리고 누비아 일대에서 채굴하였다. 이집트인들은 일찍부터 금 괴를 가치 있는 물건으로 사용했다. 각각의 금괴에 는 왕의 이름이나 소유 표시가 찍혀 있었다. 이집트 인들은 심지어 금과 은의 교환 비율까지도 규정해 놓았다. 기원전 1900년경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이집트(애굽)에서 가나안(레반트; Levant)으로 이동할 때 귀중한 금속인 금과 은을 챙겼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 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 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창세기 13장 1~2절)

기원전 1200년경 유대인은 가나안땅에 도착하 여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각 부족은 사사가 다스렸다. 이 시기 사사들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사사기에서 기술되어 있다. 사사들은 유대인 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의 질서를 확 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유대인들은 전투를 통해 패배시킨 부족들을 약탈해서 금을 얻었고 모세와 유대인들은 미디아나이트인(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 자손)들로부터 금으로 된 패물, 팔찌와 팔찌, 도장을 새긴 반지, 귀걸이, 팔장식 등 300파운 드의 금을 탈취했다.

기원전 1020년경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워 국가 를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유대인들은 왕의 필요성을

느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추대하였다. 다윗은 오빌(아라비아 반도 혹은 홍해 근처 아프리카, 인도 로 추정)에서 금 3,000 달란트를 가져와 왕후의 치장과 성전을 꾸미는 데 사용하였다. 금 3,000달란 트는 102.9톤으로 오빌은 100톤 이상의 금과 250 톤 이상의 은을 생산하는 금광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솔로몬은 선박을 이용하여 금 420달란 트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다윗과 솔로몬은 오빌 과의 무역으로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아라비아 반도의 향료 길을 통해 남아 라비아(예멘)에서 유향·몰약이 유입되었다. 오빌 에서 가져온 금과 은은 동양에서 가져온 값비싼 향신료, 비단, 목재, 광물 등 무역품과 교환되었을 것이므로 오빌은 인도이기보다는 아라비아 반도이 거나 아프리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정련한 은 7,000 달란 트를 들어 성전 벽에 입히게 하였고(역대상 29장 4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 에서 배를 지었더라. 하람이 자기 종들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배로 보냈더니, 그들이 오빌에 가서 금 42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열왕기상 9:26-28)

기원전 900년경 솔로몬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페니키아와 협력하여 해상 무역과 육상 교역로 독 점으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으며 복속된 주변 국 가(모압, 암몬, 에돔 등)에서도 조공을 바쳤다. 왕실 이 직접 무역로를 통제하여 국내외 상인들에게 통 행세와 거래세를 부과했으며 무역 이익을 독점했 다. 솔로몬은 페니키아의 왕이 지원하는 선원들을 이용하여 3년마다 선박을 다시스(이베리아 반도의 항구도시)로 보내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그리고 공작을 실어 왔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매년 금 23톤을 세금으로 거두었다. 솔로



몬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다.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이 성전의 서쪽 벽이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다)의 벽에는 금이 둘러있었고 성전의 길이는 41m, 너비 10m, 높이 15m였으며 3개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 국경 지대까지 이르는 땅을 통치하였고 예루살렘 내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저지대의 일반 뽕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의 금의 무게가 매년 육백육십육 달란트여서, 그 외에도 세금과 무역상과 상인들이 가져온 것과 아라비아 왕들과 지방의 총독들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것이 있었더라.(열왕기상 10장 14~15절)

솔로몬이 받은 금의 무게는 매년 육백육십육 달란트였고, 그 외에 상인과 무역상들이 가져온 것과 아라비아 왕들과 지방의 총독들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금도 있었더라.(역대하 9장 13~14절)

기원전 605년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 2세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을 장악했다. 이때 유다 왕국(이스라엘 남쪽 왕국)은 바빌로니아의 종속국이 되었다. 바빌로니아는 유다 왕국이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 기원전 597년 유다 왕국의 왕 여호야김이 바빌로니아에 반기를 들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의 재산을 가져갔다.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이 또다시 바빌로니아에 반란을 일으키자 느부갓네살 2세는 예루살렘을 재차 공격하여 도시를 파괴하고 솔로몬 성전까지 불태웠다. 유대인들은 대거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바빌론 포로기라고 한다. 이 역사는 성경의 열왕기하 24~25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금과 은, 그리고 놋(구리와 아연의 합금)을 전리품을 가져간다.

저가 여호와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와의 전의 금 기명을 다 훼파하였으니 여호와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열왕기하 24장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와의 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와의 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순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 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열왕기하 25장 13~15절)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고레스 2세, Cyrus the Great)이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멸망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했다. 유대인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 이는 성경의 에스라 1장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으며 에스라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은, 금, 재물, 가축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에스라 1장

5절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가문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났다.

6절 그들의 이웃들은 은 그릇, 금, 재물, 가축과 더불어 예물, 보물들을 기꺼이 주었다.

9절 그 수는 이러하다. 금 접시가 30개, 은 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10절 금 대접이 30개, 은 대접이 410개, 그 밖의 기구가 1,000개였다.

11절 금과 은 그릇의 총수는 5,400개였다. 세스바살은 그 모든 기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과 함께 가져갔다.

[3] 금과 은은 어떻게 화폐가 되었나

3.1 소아시아는 금과 은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기원전 7세기 소아시아의 리디아 왕국에서는 금과 은이 자연적으로 섞인 합금인 일렉트럼(electrum)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초기의 일렉트럼 덩어리는 콩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크기와 무게가 일정하지 않고 가치 표시도 없어 거래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리디아의 통치자들은 일렉트럼 덩어리의 무게와 품질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의미로 표식을 찍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표시는 교환 과정에서 신뢰를 높여 주었고 거래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후 일렉트럼 덩어리의 크기와 무게가 점차 표준화되면서 오늘날의 주화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기원전 7세기 후반에는 일정한 무게와 가치를 지닌 일렉트럼 주화가 등장하였다. 약 반세기 만에 초기의 불규칙한 금속 덩어리는 둥근 형태와 명확한 표식을 갖춘 주화로 발전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가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원전 6세기 중엽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는 화폐제도를 개혁하여 금화와 은화를 함께 사용하는 복본위제 통화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전의 일렉트럼 주화는 금과 은의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크로이소스는 순금과 순은에 가까운 주화를 별도로 주조하여 화폐의 신뢰성과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러한 제도는 이후 그리스와 로마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랫동안 금과 은을 함께 사용하는 통화체제의 기초가 되었다.

복본위제 아래에서 금화는 주로 대규모 거래와 국제무역에 사용되었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은화는 일상적인 상거래와 소규모 거래에 널리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규모의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아시아의 상인들은 거래에 사용되는 금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금석을 활용하였다. 시금석에 금을 문질러 남은 흔적을 여러 종류의 시험 바늘과 비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바늘들은 금·은·구리의 혼합 비율이 서로 달랐다. 이를 통해 금의 순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술은 귀금속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캐럿(carat)은 이러한 순도 측정 관행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사용된 시험 바늘 가운데 24번째 바늘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후 24캐럿이 순금을 의미하는 기준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리디아에서 확립된 표준화된 화폐제도는 기원전 547년 페르시아 제국이 소아시아를 정복한 이후에도 계승되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다릭(Daric)이라 불리는 표준 금화와 시글로스(Siglos)라는 은화를 발행하였다. 또한 금속화폐를 이용해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제국 전역에 통일된 경제질서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소아시아에서 발전한 금속화폐 제도는 리디아를 넘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지중해와 서아시아 지역의 화폐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아시아는 고대 세계에서 금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리디아 왕국의 수도 사르디스(Sardis) 인근을 흐르는 팍톨로스강(Pactolus, 현재의 게디즈강)은 사금이 많이 산출되는 곳으로 유명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팍톨로스강에서 자연금이 채취되었으며 이것이 리디아의 부를 뒷받침한 중요한 원천이었다고 『역사』에 기록하였다. 또한 미다스 왕이 황금손의 저주를 씻어내자 강물이 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지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 지역의 풍부한 금 자원을 얼마나 인상적으로 여겼는지를 보여



준다.

사르디스는 풍부한 금 자원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란,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상인들과 에게해 및 지중해 세계의 상인들이 이곳에서 교류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다.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와 결제 수단이 필요해졌고 금속화폐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소아시아의 풍부한 금과 은은 단순한 부의 상징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이었다. 고대부터 금과 은은 귀금속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환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한 국가는 군사력과 상업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아시아는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관심과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리디아 왕국이 발전한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이 지역을 정복하여 화폐제도와 교역망을 계승한 것도 소아시아가 가진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풍요로움에 매몰되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년 ~ 322년)는 미다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물질적 부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경계하였다. 미다스 신화는 금의 풍요로움을 묘사하는 동시에 물질적 부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탐욕을 경계하는 교훈을 담고 있다. 신 디오니소스로부터 손이 닿는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얻은 미다스는 처음에는 이를 축복으로 여겼지만 결국 음식조차 먹을 수 없게 되고 소중한 것들마저 잃게 되면서 불행에 빠지게 된다. 이 이야기는 물질적 부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오히려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이 단순히 재산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부를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행복은 덕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삶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3.2 풍부한 금과 은은 군사력에 도움을 준다

기원전 359년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즉위한 필립포스 2세는 왕국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기반 확충에 힘썼다. 그는 고대부터 금광과 은광으로 유명했던 팡가이온(Pangaion) 산맥 일대를 장악하여 대량의 금과 은을 확보하였다. 마케도니아는 이곳에서 채굴한 귀금속으로 주화를 대량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군대를 유지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다. 필립포스 2세는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외교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그리스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갈등을 이용하여 세력을 넓혀 나갔고 기원전 346년에는 아테네가 평화 협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마케도니아의 영토와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원전 340년 무렵에는 왕국의 규모가 즉위 초기보다 약 2배 성장하였다.

필립포스 2세는 금광과 은광의 개발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력 향상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관개시설과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홍수 조절 사업을 추진하여 총적토가 넓게 분포한 마케도니아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농업 기반 시설의 확충은 곡물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왕국의 식량 공급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풍부한 식량은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마케도니아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그리스 각지의 사람들이 유입되었고 새로운 정착지와 도시가 형성되었다. 농업 생산력의 증가는 군사력 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풍부한 곡물과 목초지는 말과 가축을 사육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마케도니아 기병 전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축은 병사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제공하여 장기간의 군사 활동을 지원하였다. 한편 필립포스 2세의 정복 전쟁으로 확보된 노예들은 농업과 광산 노동에 투입되어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이처럼 농업 생산력의 증대, 광산 개발,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자원이 결합되면서 마케도니아는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2세가 경호원 중 한 명에게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왕위에 올라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5년 그리스 도시국가 중 테바이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이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통제능력을 보여주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소아시아로 진출하면서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다. 알렉산더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소아시아의 화폐 주조소와 팍토로스 강의 금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4~332년까지 시리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정복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1년 기슭공격으로 이집트에서 페르시아 총독들을 쫓아낸 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총공격에 나섰다. 얼마지나지 않아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잇는 페르시아 왕도 위의 모든 지점들과 소아시아 해안을 중앙아시아와 연결하는 교통망을 점령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금과 은은 군사력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버지가 마련한 경제적 기반을 계승한 뒤 동방 원정을 통해 더욱 막대한 부를 확보하였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 각종 보물을 획득하였고 이를 조폐국으로 보내 주화로 주조하게 하였다. 풍부한 귀금속 공급 덕분에 마케도니아의 조폐국은 끊임없이 화폐를 생산할 수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군사력 강화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병사와 용병들에게 충분한 급료를 지급하여 충성심을 유지하였고 약탈에 의존하지 않고도 군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병사들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거나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 전역하는 병사들에게는 전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군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간의 원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후 기존의 화폐 제도를 계승하였다. 그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시절부터 사용되던 금화와 은화 체계를 활용하는 한편, 그리스의 드라크마 및 테트라드라크마 체계를 제국 전역에 확산시켜 통일적인 화폐 질서를 구축하였다. 동서에 걸친 광대한 영토에서 상업과 조세, 군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알렉산드로스가 발행한 주화에는 주로 헤라클레스와 제우스의 모습이 새겨졌으며 이는 그의 통치 권위와 신성성을 상징하였다. 이후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들은 자신의 초상을 화폐에 새기기 시작하였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왕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가 널리 보급되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그의 통치 기간은 기원전 336년부터 323년까지 약 13년에 불과하여 경제·행정 개혁이 제국 전역에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사후 제국은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었지만 그가 확립한 화폐 제도는 인도에서 그리스, 이집트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특히 알렉산드로스형 은화는 헬레니즘 세계의 표준 화폐로 자리 잡아 이후 약 150년 동안 국제 교역과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3.3 페니키아의 금과 은 vs 로마의 국채

기원전 3세기 로마가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하면서 철광 자원과 대장장이 기술이 체계화되었다. 라티퐁디움(latifundium)이라 불리는 대농장에서 철제 쟁기날, 낫, 쟁이 등 농기구들이 점점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노동 효율은 극대화되었다. 기원전 1세기부터 로마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로를 만들었으며 돌로 포장된 간선도로의 길이는 8만km였고 자갈로 포장된 도로를 포함하면 15만km였다. 도로에 배수로가 설치되었고 습지는 독을 세워서 물의 유입을 막고 강과 골짜기는 다리를 만들었으며 산은 터널을 뚫어 도로를 직선화했



다. 로마는 점령한 도시들에 로마처럼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만들었다. 관개의 발전은 농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귀리, 보리, 완두, 콩 등 새로운 곡물들이 재배되기 시작했다. 또 삼포식 농법을 도입하여 3분의 1 기간은 춘파지로 늦봄에 파종해 가을에 수확하고 3분의 1 기간은 추파지로 가을에 파종해 초여름에 수확하고 나머지 3분의 1 기간은 휴경지로 땅을 쉬게 함으로써 농지의 토질을 보전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었다. 기원후 1세기~2세기가 되면 철제 농기구가 로마 제국 전역에 널리 보급되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 시기부터 각지에서 철제 쟁기날, 낫, 쟁이 유물이 풍부하게 출토되었다.

기원전 3세기경 로마는 남이탈리아를 장악하며 이탈리아 반도의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영토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의 중요성이 커졌고 지중해의 주요 곡창지대인 시칠리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당시 마메르티니는 이탈리아 출신 용병 집단으로 시칠리아의 도시 국가인 시라쿠사의 군주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주가 사망하자 이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메시나 도시를 점령한 뒤 약탈과 약취를 일삼기 시작하였다. 이에 시라쿠사 사람들은 마메르티니를 제거하기 위해 메시나 공격을 준비하였다.

위기에 처한 마메르티니는 로마와 카르타고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서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시칠리아 동부까지 세력을 확대하려 하였다. 로마는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전체를 장악할 경우 이탈리아 남부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칠리아의 풍부한 곡물 생산력 역시 로마에게 매력적인 요소였다. 로마는 이탈리아계 주민인 마메르티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시칠리아 문제에 개입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충돌한 제1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241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241년) 후반부

에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해상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를 재건해야 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크게 소모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로마는 전시국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원로원 의원과 유산 계급의 부유한 시민들은 국가에 자금을 제공하였고 로마 정부는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카르타고로부터 받을 배상금과 전리품을 재원으로 이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오늘날 국채는 국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로마 제국의 국채와 차이가 있다. 다만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후 이에 대한 상환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현대 국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전쟁에서 패배하면 상황이 불가능할 위험이 있었지만 승리할 경우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강탈보다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로마는 200척이 넘는 함대와 6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재건하였다. 기원전 242년에 완성된 새로운 함대는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로마는 그동안 카르타고 해군에 비해 기동력에서 열세에 있었지만 재건 과정에서 카르타고 군함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더욱 날렵하고 성능이 향상된 군함을 건조하였다. 여기에 로마군 특유의 강점인 선상 백병전 능력이 결합되면서 로마 함대의 전투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로마의 국채는 장기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제1차 포에니 전쟁 승리의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에 승리하자 로마는 페니키아로부터 징수한 전쟁 배상금과 세금 수입으로 채권을 상환했다. 하지만 페니키아는 국채라는 개념이 없었고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증세를 선택했다. 페니키아는 카르타고 시민들의 반발 때문에 세금을 올리지 못했고 속령인 리비아의 세금을 두 배로 증가시켰다. 카르타고는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한 후 페니키아는 재정 긴축에 신경쓰고 있었다. 페니키아는 계약기간 중 전쟁이 끝나자 실제 계약기간의 절반밖에 일하지 않았으므로 용병료도 절반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병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했고 세금이 두 배 오른 리비아와 차별받던 민족들이 가세하자 처음에 2만 명이었던 반란군이 5만 명으로 증가했다. 카르타고는 무력으로 반란군을 진압했지만 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용이 용병들의 미지급금보다 컸다.

피폐해진 카르타고는 이베리아반도를 선택했다. 아프리카에서 성공을 거둔 카르타고의 농업기술은 이베리아반도에 이식되어 농업생산을 크게 증진시켰다. 카르타헤나 부근에서 운 좋게 발견된 바에벨로 은광을 개발하였다. 이곳에서 하루 136kg의 은을 채굴했다고 한다. 이 은은 로마에 보내는 배상금으로 사용되었고 카르타고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베리아반도의 남쪽과 동쪽 해안이 카르타고의 속주가 되면서 카르타고의 상공업은 번성하였다. 카르타고는 이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시켰다. 정복 과정에서 생긴 이베리아 포로들은 부대에 편입되었고 노예 시장에서 조달한 용병도 보충되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경쟁은 귀금속 자원을 둘러싼 경제력 경쟁이었다. 카르타고는 이베리아반도의 풍부한 은광과 금광을 확보하여 더욱 강력한 재정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카르타고는 제1차 포에니 전쟁 패배 이후 이베리아반도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국력을 회복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은 군대 유지와 전쟁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니بال은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원전 218년 이베리아반도에서 출정하여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본토를 공격하는 대담한 전략을 실행하였다. 트라시메네호 전투(기원전 217년)와 칸나에 전투(기원전 216년)는 로마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로마는 전쟁 자금

을 확보하기 위해 제1차 포에니 전쟁과 마찬가지로 국채를 활용하였다. 국채로 마련된 자금은 병사들의 급여 지급, 무기 생산, 함대 유지, 식량 조달 등에 사용되었다. 전쟁의 전환점은 기원전 210년 경부터 나타났다.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카르타고의 핵심 재정 기반인 이베리아반도를 공략하여 주요 은광 지역과 거점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이로 인해 카르타고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귀금속과 자원 공급에 큰 타격을 입었고 전쟁의 주도권은 점차 로마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지연 전술이 한니بال의 전력을 소모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스키피오는 이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본토를 직접 공격하여 한니발을 이탈리아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었다. 마침내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한니발을 격파하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로마가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하였고 이후 카르타고는 식민지를 모두 로마에게 넘기고 막대한 공물을 바치기로 합의했다. 카르타고가 이베리아반도에 소유했던 금광과 은광이 로마로 넘어가자 로마인들은 돈이 있는 서쪽으로 몰려갔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화폐 공급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로마인들은 리오토티(Rio Tinto), 라스 메두라스(Las Médulas) 등 이베리아반도의 금광과 은광을 개발하였고 로마의 화폐 공급량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로마는 부족했던 은이 풍부해지자 육군과 해군에 지급할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으며 거대한 경제력은 지중해 전반의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로마는 이베리아반도의 은광을 얻은 후 지중해 세계를 경제적·군사적 장벽 없이 비교적 쉽고 체계적으로 지중해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부족했던 은이 풍부해지자 로마는 고대 아테네가 그랬듯이 부족했던 국방비를 지급하고 화폐를 찍어 국제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는 빠르게 회복하는 카르타고를 경계했다. 카르타고는 농업과 공사업



의 기반이 튼실했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평화가 계속되면서 카르타고의 무역업은 부흥했고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카르타고는 50년 분할로 되어 있는 배상금 중 남아 있는 40년 치를 일시에 갚겠다고 제안했으나 로마가 거절했다. 카르타고와 누미디아 간 영토분쟁에 있어 로마가 계속 누미디아에 유리하게 결정하자 카르타고는 로마의 허락 없이 누미디아군과 전쟁하였으나 패하였다. 기원전 146년 로마는 카르타고의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카르타고를 침입했고 카르타고는 멸망했다. 카르타고는 누미디아와 전쟁에서 패해 대부분을 잃은 상태였고 카르타고의 군사력이 낮은 상태를 로마는 놓치지 않았다. 로마는 제1차 포에니 전쟁과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국채를 발행하였지만 제3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카르타고를 압도하여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포에니 전쟁을 통해 로마는 정복 전쟁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은 모든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농들이 몰락하였고 반대로 귀족과 부유층은 정복지에서 유입된 노예 노동력을 활용하여 대규모 농장(라티퐁디움)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 결과 로마 사회의 빈부격차는 점차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라쿠스 형제는 국가 공유지의 과도한 점유를 제한하고 토지를 빈곤한 시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빈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은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형제 모두 정치적 갈등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부유한 정치가와 장군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후원하였으며 정복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과 토지를 지지 세력에게 분배하였다.

3.4 금과 은은 국제통화로 통용되었다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은이 가치

척도로 자리 잡으면서 은은 국제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금과 은은 희소성이 높고 보관이 용이했으며 널리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인도는 기원전 3천년, 이란 지역은 기원전 2천년, 중국은 기원전 1천년 초 무렵부터 금과 은을 귀중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에서는 상품과 토지, 임금의 가치를 은의 무게 단위인 셰켈로 표시하였으며, 아시리아 상인들은 장거리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은을 사용하였다. 이후 페르시아 제국은 은화인 시글로스(Siglos)를 발행하였고 그리스에서는 드라크마(Drachma)가 널리 유통되었다. 인도에서도 은화가 사용되었으며 중국 한나라 역시 공식 화폐는 청동화였지만 은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제무역과 고액 거래에서 활용하였다. 로마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서아시아와 지중해에서는 은이 사실상의 국제통화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로마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은화를 중심으로 한 화폐 체계를 구축하였다. 로마의 은화 체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은 공급에 있었다. 로마는 히스파니아(현재의 스페인), 발칸 반도, 소아시아 일부 지역의 주요 은광을 장악하였으며, 특히 스페인의 은광은 고대 세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였다. 로마는 이 은을 바탕으로 데나리우스(Denarius)를 대량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광대한 제국의 상업과 군사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로마는 이러한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이베리아반도 지배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기원전 197년 로마는 이베리아반도를 히스파니아 키테리오르와 히스파니아 울테리오르의 두 속주로 나누어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부족들의 저항이 계속되었으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기인 기원전 19년에 이르러 이베리아반도 전역을 완전히 정복하였다.

이베리아반도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광물 자원 공급지였다. 리오 틴토(Rio Tinto)를 비롯한 광산 지역에서는 은뿐만 아니라 금, 구리, 철 등 다양한 광물이 생산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연간 약 25~40

톤의 은이 채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로마 제국 전체 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로마는 이베리아의 풍부한 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국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은화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기(기원전 27년~기원후 14년)에는 은화 주조가 절정에 이르렀다.

풍부한 은 공급은 로마의 화폐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원후 160년경 로마 제국에서 유통되던 화폐를 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화가 약 60%, 은화가 30~35%, 동전이 5~1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은화와 동전의 비중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정 초기에는 은화가 로마 경제에서 핵심적인 교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로마와 한나라의 세금 납부 방식이 크게 달랐다는 사실이다. 로마에서는 세금의 상당 부분이 곡물이나 기타 생산물 같은 현물 형태로 납부되었으며 은화를 이용한 세금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한나라는 국가가 발행한 동전을 활용한 세금 납부 비중이 높았으며, 전체 화폐 유통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조세 징수 과정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제국의 화폐 유통 구조를 보여 준다. 로마의 은화는 상인, 지주, 군인, 고액 거래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여전히 현물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 한나라의 동전은 조세 납부와 시장 거래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일반 농민과 서민들도 화폐를 보유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즉 로마의 화폐 경제가 상업과 군사 활동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면 한나라의 화폐 경제는 국가의 조세 체계와 결합하여 보다 광범위한 사회 계층에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세기 아우구스투스(기원전 27년~기원후 14년)의 집권 시기에는 아우레우스(aureus)라는 금화가 도입되었다. 라스 메둘라스(Las Médulas)는 고대 로마 제국이 스페인 북서부에 위치한 유명한 금광이다. 라스 메둘라스는 산속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어서 채굴이 쉽지 않았다. 로마는 이곳에서 대규모 수압 채굴법을 사용하여 금을 채굴했으며 이는 당시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로마인들은 금이 매장되어 있는 산 정상에 거대한 인공 저수지를 만든 다음 산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층층이 터널을 뚫어 지반 압력을 분산시킨 뒤 저수지의 물을 일거에 흘려보내 산을 무너뜨리는 식이었다. 산 곳곳에 만들어 놓은 터널이 물을 산 깊은 곳까지 흐르도록 만들었고 금광석이 지표면에 나오도록 하는 원리이다. 라스 메둘라스는 로마 제국의 주요 금 생산지 중 하나로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약 250년 동안 금을 채굴했으며 그 기간 동안 약 500톤의 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방법은 산 전체를 허물어뜨리고 농경지를 망가뜨렸으며 많은 강과 항구에 진흙을 쌓아놓았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레반트 지역을 정복하였다. 시리아와 유대 왕국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유대 왕국은 기원전 586년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이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셀레우코스 제국(시리아)과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집트) 간의 각축장에서 독립하며 세워진 유대인의 국가이다. 유대 왕국은 처음에 자치권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치권이 축소되었다. 기원전 6년 유대 왕국은 로마의 속주인 유대아 속주로 전환되었다.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에 반란을 일으켰고 이렇게 발발한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은 기원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끝났다. 전쟁 이후 유대 지역은 더욱 엄격한 로마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속국인 유대 왕국은 로마에 조공을 바치고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지배를 받았다.

기원전 30년 이집트 정복은 로마 제국의 경제적 번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당시 이집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들이 약 300년 동안 통치해 온 부유한 왕국이었다. 이집트의 번영은 나일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매년 반복되는 나일강의 범람은 비옥한



토양을 공급하여 풍부한 곡물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이로 인해 이집트는 고대 지중해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로 성장하였다. 풍부한 농업 생산력은 현지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나일강 하구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는 곡물 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변형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이집트는 오랫동안 로마가 탐내던 지역이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격파한 뒤, 기원전 30년 로마는 이집트를 완전히 병합하였다. 이집트의 편입은 로마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로마는 나일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곡물을 확보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곡물 가격을 낮추고 도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소비 여력을 높였다. 또한 이집트는 로마 정부에 막대한 조세 수입을 제공하며 제국 재정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6세기 동로마 제국(비잔티움) 시기에도 국가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며 특히 곡물 공급은 제국의 경제와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였다.

로마는 이집트를 제국의 곡창이자 섬유 공급지로 활용했으며 이집트의 마 섬유 산업을 전략적으로 통제하였다. 이집트에서 생산된 고품질 마 섬유는 주로 로마 제국 내에서 군복, 의례용 직물, 관료복 등에 사용되었으며 대외 무역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로마 정부는 마 섬유를 국가 독점 품목으로 지정하여 민간 상인의 자율적인 무역 참여를 차단하였고 로마 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지중해의 정치적 통합 이후 마 섬유 유통의 중심지는 이집트에서 이탈리아의 오스티아 항구나 다른 제국의 중심 도시들로 이동하였으며 이는 이집트의 섬유 산업이 독립적인 부의 원천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마 섬유의 생산 중심지는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있었지만 무역과 유통의 주도권이 로마 당국으로 이전되었다. 이집트산 마는 오스티아를 통해 로마로

수송된 뒤 제국 전역으로 분배되었으며 시리아의 안티오크 등지(페니키아의 유산)에서는 염색 기술과 결합해 고급 직물로 가공되었다.

이집트 남부의 누비아 지역은 고대 세계 최대의 금 생산지 가운데 하나였다. 누비아의 금광은 고대 이집트의 부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었으며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금 산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금의 생산 과정은 매우 가혹했다. 광부들은 좁고 어두운 갱도에서 작업해야 했으며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는 항상 탁하고 부족했다. 암반에 박힌 금을 채취하기 위해 석영을 가열하고 깨뜨리는 과정에서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였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를 흡입하여 목숨을 잃었다. 갱도 내부는 극심한 열기와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지하수 유입은 끊임없는 위협이었다.

광산 노동의 상당 부분은 노예들이 담당하였다. 노예들은 몸을 제대로 펴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고 낙석이나 질병, 과로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금광은 귀중한 부를 창출하는 장소였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노동과 희생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국가들에게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수단만이 아니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새로운 노예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은 광산과 농장 등에서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금광과 같은 대규모 채굴 현장은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전쟁 포로는 국가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졌다.

고대 로마에서 노예는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노동력이었다. 학자들은 제국 초기인 1세기경 이탈리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300만 명, 로마 제국 전체로는 약 500~600만 명이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노예들은 귀족들의 저택에서 가사 노동을 담당했으며, 수공업장과 광산, 건축 현장에서도 중요한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일부는 매춘에 종사하거나 검투사가 되었고 교육 수준이 높은 노예들은 교사, 비서, 회계사 등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많은 노예가 투입된 분야는 농업이었다. 로마의 대지주들은 광대한 농장(라티퐁디움)에 노예를 대규모로 투입하여 곡물과 올리브, 포도 등을 생산하였고 이는 로마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노예 공급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전쟁이었다. 로마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수많은 전쟁 포로를 노예로 편입하였다. 예를 들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정복 과정에서 수만 명의 주민을 노예로 팔아넘겼으며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도 대규모 노예를 확보하였다. 로마가 정복을 계속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한 노예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정복 전쟁은 새로운 영토뿐만 아니라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여 농업과 광업 등 로마 제국의 산업을 일굴 수 있었고 로마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

로마인들은 중국의 비단을 사랑했다. 비단은 매우 장기간의 위험한 순간을 무사히 극복해야 로마에 도달하는 수 있었다. 비단은 많은 상인들의 손을 거치게 되었고 값은 더 비싸졌다. 중국 내에서도 비싼 제품인 비단은 로마에 도착하면 중국의 비단의 100배에 달하는 가치가 되었다. 무게당 가치와 금과 비슷해서 몇 온스만으로도 일반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맞먹었다. 엘라가발루스 황제 같은 최고 부유층만 비단으로 만든 전신 토가를 입을 수 있었다. 1세기 후반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숙녀들이 남들 앞에서 열정대보려고 실제 가격보다 100배나 비싼 사치품에 돈을 쓴다며 분개했다. 로마는 인도·중국·아라비아에 연간 1억 세스테르티우스를 지출하였고 중국의 비단이 최소 50% 이상 차지했다. 이 액수는 제국의 연간 화폐 주조량의 35~45%에 육박하고 제국 연간 예산의 10%를 넘는 것이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이요(요한계시록 18장 11-12절)

이와 같이 내가 금과 은으로 꾸밈을 받고, 네 의복은 세마포와 비단과 채색 옷이며, 내가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며 심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에스겔 16장 13절)

한 부자가 있어 자주색 옷과 고운 비단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살더라(누가복음 16장 19절)

상인들은 비단을 중국에서 로마까지 운송하기 위해 주로 해상로를 이용했다. 중국 남부 항구의 상인들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따라 내려가 말레이반도와 뱅골만을 지나 스리랑카에 도달하는 긴 항해를 떠났고, 이 과정에서 비단을 선박에 실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인도 상인들이 이를 인도 남서부의 타밀 지역 항구들(무지리스, 넬신다, 코마라 등)로 옮겼다. 이곳에서 다시 그리스와 아랍 중개 상인들이 비단을 실어 홍해 남단의 아덴 만이나 에우도몬 아라비아(현 예멘)까지(혹은 페르시아만-메소포타미아 경로를 이용하기도 했다) 운반했다. 여기서 그리스 선박에 실린 비단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 이집트 남단의 베레니스 항구로 향했고, 거기서 다시 낙타에 실려 사막을 건너 나일강 상류로 옮겨졌다. 이어 배로 나일강을 따라 하류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이동한 뒤, 마지막으로 로마 상선에 실려 푸테올리와 오스티아 같은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로 운송되었다. 당시 상인들은 국경과 해역을 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국 상인은 스리랑카를 넘지 않았고, 인도 상인은 홍해 북부로, 이탈리아 상인은 알렉산드리아를 벗어나지 않았다. 다양한 상인 집단이 각자의 구간을 담당하는 가운데 그리스-로마 상인들은 인도에서 로마까지 비교적 장거리 무역을 수행했다.

한나라가 파견한 장건의 사절단은 기존 교역 경로를 확인하고 확대함으로써 이른바 비단길로 불리는 중앙아시아 육상 무역망을 체계화하였다. 이 무역로는 군사적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



였으며 카이베르 고개에서 천산산맥에 이르는 다양한 노선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교역량의 상당 부분은 육로보다 운송비가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은 인도양 해상 무역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로마는 무역로가 체계화될수록 인도산 향료와 중국산 비단을 비롯한 사치품을 더 많이 수입하였다. 그 대가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동방으로 유출되었지만 귀금속은 다시 로마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로마는 새로운 금·은 광산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귀금속을 공급해야 했다. 당시 로마는 매년 상당한 양의 금과 은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무역으로 인한 귀금속 유출 압력을 꾸준히 받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화폐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로마의 은화 유통량은 기원전 1세기 후반 무렵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로마는 이후에도 영토를 확장하며 번영을 누렸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장기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었다. 특히 정복 전쟁을 통해 유입되던 전리품과 귀금속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군대 유지비와 행정 비용은 계속 증가하였다. 재정 압박이 커질 때마다 로마 정부는 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의 은 함량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기원전 54년 무렵 카이사르 시대의 데나리우스 은화는 높은 순도를 유지하였으나 기원후 64년 네로 황제는 은 함량을 낮추어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였다. 이후 이러한 화폐 가치 절하 정책은 반복되었고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수 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서기 2세기 후반 로마 제국은 북방 게르만 부족과의 마르코만니 전쟁(166~180년)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생의 상당 기간을 이 전쟁에 투입하였으며 장기전에 따른 군사비 증가는 국가 재정을 크게 압박하였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로마는 은화의 은 함량을 지속적으로 낮추었고 데나리우스 은화의 순도는 80% 초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 콤모두스가 황위에 올랐다. 콤모두스는 북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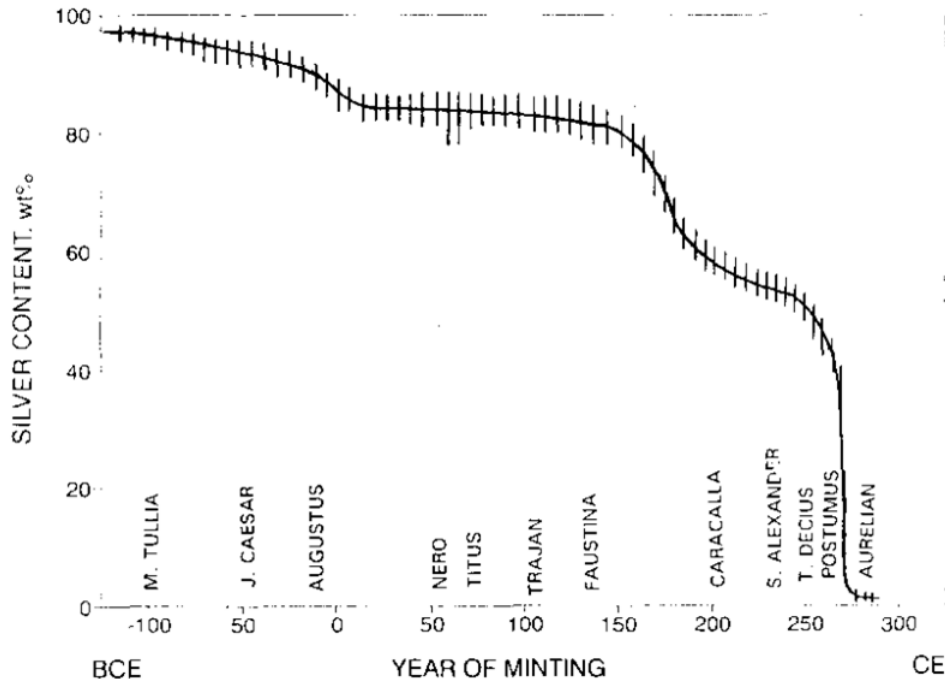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유지했지만 군대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화려한 검투 경기와 각종 선물을 남발하였다. 콤모두스 정부는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지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화의 순도를 추가로 낮추는 화폐 가치 절하 정책을 시행하였다.

국가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콤모두스는 192년 암살되었고 그의 죽음은 심각한 권력 공백을 초래하였다. 이듬해인 193년에는 여러 장군과 정치 지도자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른바 '5황제의 해'가 전개되었다. 5황제의 해 동안 페르티낙스, 디디우스 율리아누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등이 군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거액의 증여금(도나티움)을 약속하였다. 최종 승자가 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는 약속한 증여금과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하였다. 데나리우스 은화의 은 함량은 약 78%에서 57%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기원후 235~284년(3세기 위기)에는 49년간 18명의 황제가 바뀌었고 공동 황제까지 포함하면 26명이었다. 로마가 내부적으로는 원로원 계급의 권력이 약해지고 기사 계급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혼란이 찾아왔고 외부적으로는 게르만족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침입이 이어졌다. 로마는 내외부적으로 위기를 맞이하면서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안토니아누스는 은 함량이 5% 이하로 급락하였다. 데나리우스는 더 이상 본격적으로 주조되지 않았으며 은화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로마의 시민들은 더 이상 화폐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지방에서는 지급자족 경제의 물물교환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284~305년)는 몰락하는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기 위해 화폐개혁과 사두정치를 시행하였다. 294년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명목가치가 실질 가치보다 높은 은화인 아르겐테이수(argenteus)를 발행하고 소액 거래를 위한 청동화폐를 함께 주조하였다. 초기에는 은 순도가 비교적 높아 화폐 신뢰를 일정 부분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금화인 솔리두스(solidus)를 도입하여 화폐의 신뢰성

〈그림 1〉 다나리우스의 은 함유량의 추이



자료: Pense, A. W.(1992),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denarius. Materials characterization, 29(2), 213-222.

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시장에 화폐의 유통량이 많아지자 물가 상승을 유발시켰고 시민들은 고통을 받았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물가 최고제를 시행했지만 시장 기능을 왜곡시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은 함량 감소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아르겐테우스 은 함량 5% 미만)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금 함유량이 60%인 금화가 기존의 은화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300년경 페르시아의 부상으로 인해 로마 제국의 동부 국경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팽창을 통해 유지되어 오던 로마는 점차 방어적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더 이상 외부 정복으로부터 조세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국경 방어 비용은 증가한 반면 조세 기반은 약화되었고 제국 재정은 심각한 불균형에 빠졌다. 이에 따라 제국의 자산과 조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

고 관리들과 감정인들이 지방을 순회하며 농지, 땅굴, 과수 등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이는 제국의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콘스탄티누스(재위 306~337년)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사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내전을 종결하고 단독 황제가 되었다. 그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여 국가가 기독교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정치적 안정과 재정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재정과 무역 안정화를 위해 금본위 중심의 화폐제도를 확립하고 고품질 금화인 솔리두스를 정착시켜 금화를 중심으로 한 화폐 유통 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동방과의 무역 상대국들, 특히 한나라나 그 후계국들은 은화를 선호했기 때문에 로마 내에서도 은화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은화와 동화의 부족 문제는 계속되었다.



[4] 지폐의 역사

4.1 최초의 지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송나라는 대표적인 부국이었다. 송나라의 전세계 대비 GDP(PPP) 비중은 약 32%로 1820년 기준 청나라의 GDP 비중인 32.9%와 유사한 수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축통화국이자 패권국이 된 미국의 GDP 비중은 1950년 기준 27.3%이고 1970년 기준 약 22%이다. 활발한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있던 1820년 기준 영국과 서유럽의 GDP는 23.6%이다. 아편전쟁 이후 영국은 명실상부한 패권국이 되면서 국제상업질서를 주도하며 1870년 기준 영국과 서유럽의 GDP는 33.6%를 기록하게 된다. 2023년 기준 중국의 GDP는 약 34.7조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경제의 약 18.7%에 해당한다.

농업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상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크게 늘어났고 이는 시장에서 거래될 상품의 증가로 이어졌다. 농민들은 남은 곡물을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도시에는 상인과 수공업자가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강남 지역의 높은 농업 생산성은 송나라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상업 경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곡물 생산이 증가하면서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대규모 운송 및 유통 체계가 발전하였고 운하를 중심으로 한 수운망과 결합하여 전국적인 쌀 시장의 형성을 이끌어냈다. 특히 강남에서 생산된 곡물은 수도 개봉을 비롯한 대도시로 대량 운송되었으며 지역 간 상품 교환도 활발해졌다.

조세제도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세금은 화폐화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주로 현물로 납부되었는데 정부에 납부된 곡물은 987년 약 620만 석(47만 1천 톤)에서 1077년에는 약 1,780만 석(135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정부와 도시의 곡물 수요는 현물 조세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웠다. 송 정부는 매년 시장에서 대량의

곡물을 추가로 구매해야 했다. 예를 들어 981년 수도 개봉으로 운송된 쌀과 조는 약 240만 석(18만 2천 톤)에 달했으며 정부는 연평균 150만 석(11만 4천 톤) 이상의 곡물을 필요로 하였고 그 상당 부분을 시장에서 조달하였다.

도시의 식량 소비 규모도 매우 컸다. 남송의 수도 항주에서는 시민들이 매년 110만~140만 석(10만 톤 이상)의 쌀을 구매하여 소비하였다. 이처럼 거대한 도시 수요는 전국적인 곡물 유통망과 상업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한편 차, 사탕수수, 뽕나무, 쪽과 같은 현금작물의 재배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농민들은 자급자족을 넘어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화폐 경제와 상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였다.

상업의 발달은 교역의 증가로 이어졌고 중국인들은 무거운 동전(철전)보다 실용적인 화폐가 필요하였다. 990년대 지방 재정 및 물자 수송을 총괄하는 장영(張詠)이 사천지방을 다스릴 당시 철전은 너무 무거워 교역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장영은 철전 1관(1,000문; 4kg, 1.8m, 쌀 50~70kg)을 1교 증서로 발급하고 매 3년마다 교환해주는 철전-교자 상환제(鐵錢交子兌換制)를 도입하였다. 이 증서가 바로 교자의 기원이 되었다. 이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교자를 발행하면서 혼란이 커지자 1016년 송 정부는 사적인 주조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1023년 관영 조직인 교자무(交子務)를 통해 통제하였다. 정부는 교자를 정식 화폐로 편입시키고 태환준비금과 발행한도를 설정하여 교자의 신뢰성을 보장하였다. 송나라는 사천지방에서 유통된 어음 일종의 교자를 태환준비금 발행액의 100%, 발행한도 1,256,340관으로 정하여 화폐를 발행했다. 상업세, 교통료, 독점판매권리 등 간접적 세금에 대해 화폐로 지불하게 하였고 개인 간 거래도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북송 정부는 민간 상인들이 사용하던 교자를 공식 화폐로 흡수하여 관료와 병사의 봉급 지급, 군수 물자 구입 등 국가 재정 지출에 활용하였다. 초기의 교자는 민간 교자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예치한 철전을 바탕으로 발행되었으며 철전과의 태환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유통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만기가 되면 새로운 교자나 동전으로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통화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발행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완전 태환성을 갖춘 화폐였다.

송나라 정부는 교자의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지폐는 견섬유 등을 혼합하여 제작함으로써 위조를 어렵게 하였으며 발행일자·일련번호·액면가·관인(官印) 등을 표기하여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교자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계(界) 제도를 도입하였다. 교자의 유통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만기가 되면 기존 지폐를 회수한 뒤 새로운 교자로 교체 발행하였다. 교자의 가치 안정을 위해 태환 준비금도 적립하였다. 교자는 철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태환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유지하였으며 정부는 발행 한도를 설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과잉 발행을 억제하려 하였다. 실제로 1023년부터 1107년까지 교자는 총 43계에 걸쳐 발행되었으며 각 계마다 발행 규모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1038년부터 서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비용이 급증하자 송나라는 충분한 준비금 없이 교자를 추가 발행하려는 유혹을 받았다. 원래 교자는 예치된 현금을 바탕으로 발행되었지만 점차 발행액의 28~30% 정도만 준비금으로 보유한 채 발행하는 부분지급준비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후에는 준비금 없이 발행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그 결과 액면가 1관(1,000문)의 교자는 실제 시장에서 940~950문 정도의 가치로 거래되었고 1060년대 이후에는 770문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도 흔해졌다. 교자의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태환성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었고 이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왕안석이 추진한 신법 개혁기(1070년대)에는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명분 아래 교자 유통이 장려되면서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휘종(徽宗) 시기에는 궁정의 사치와 대규모 건축 사업까지 더해져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되었다. 1106년경 교자 발행액은 초기의 20배가 넘는 2,600만 관에 이르렀으며 상당수는 충분한 준비금 없이 발행되었다. 교자는 철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태환 능력을 점차 상실하였고 화폐에 대한 신뢰도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원래 1관(1,000문)의 가치를 지녔던 교자는 1120년대에는 100~200문 정도로 평가되었고 1130년대에는 10~20문 수준까지 폭락하였다.

교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송 정부는 1107년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인(錢引; 사천 지역에서 주로 사용)이라는 새로운 지폐를 도입하였다. 전인은 교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행 제도를 강화한 화폐였다. 기존 교자가 철전만을 준비금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전인은 철전뿐 아니라 쌀과 소금 등 현물 자산도 준비금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철전 자체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교자의 실질가치도 함께 떨어졌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1127년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이 수립된 이후에는 교자가 폐지되고 전인만이 공식 지폐로 유통되었다. 초기 전인의 유통 규모는 약 188만 관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141년에는 발행액이 약 589만 관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금(金)과의 화의가 성립되어 국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자 정부는 1145년 전인 발행량을 다시 축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1161년 금나라가 남송을 침공하면서 군사비 부담이 급증하자 전인 발행액은 약 2,300만 관까지 치솟았다. 이후에도 전쟁과 재정지출로 인해 발행량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13세기에 들어서는 통화 팽창을 수용하기 위해 지폐의 유통 기간도 기존 3년에서 6년, 나아가 10년까지 연장되었다. 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인은 교자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보다 현실적인 준비금



체계를 갖추고 출발했지만 전쟁과 재정 적자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과잉 발행의 길로 들어섰다. 1234년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해에 발행된 제99계 전인을 마지막으로 송나라 지폐 제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송 정부는 전인의 과도한 발행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60년경 새로운 지폐인 회자(會子; 강남 지역에서 주로 사용)를 도입하였다. 당시 교자와 전인은 전쟁 비용과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대량 발행되었고 이로 인해 지폐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남송 정부는 회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다 강화된 준비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회자는 철전뿐만 아니라 쌀, 소금과 같은 현물 자산, 나아가 은까지 준비금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화폐 가치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회자의 가치를 1관당 동전 770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일정한 유통 기간을 설정하여 만기 시 은이나 현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남송의 제2대 황제 효종(孝宗)은 회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 안정 정책을 실시하였다. 1166년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던 회자를 은 200만냥 상당 규모로 매입하여 소각하였고 1169년에는 유통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1계당 발행 한도를 1,000만 관으로 정하였다. 또한 회자를 세금과 각종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가가 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하였다. 1175년경까지 회자의 가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1215년의 토지 거래 장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거래가 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은은 보조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였다.

그러나 13세기에 들어 군사비 부담이 커지고 금나라 원정 실패 등으로 재정 압박이 심화되자 정부는 다시 회자를 대량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회자의 발행액은 1186년 2,000만 관을 넘어섰고, 1209년에는 1억 1,000만 관, 1224년에는 2억 4,000만 관, 1246

년에는 6억 5,000만 관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다.

몽골의 침입은 남송 경제와 화폐 제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몽골은 1234년 금나라를 멸망시킨 뒤 남송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었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남송을 압박하였다. 본격적인 침공은 1250년대 들어 몽케 칸과 쿠빌라이 시기에 확대되었으며 1258년에는 대규모 남송 원정이 시작되었다. 남송 정부는 막대한 군사비와 군량미 조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자를 대량 발행하여 시장에서 쌀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이미 오랜 기간 지속된 통화 팽창으로 회자의 가치는 약화된 상태였다. 회자의 가치는 액면가의 60% 이하로 떨어졌고 1250년대에는 액면가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정부는 지역별 대체 화폐를 발행하고 회수 정책을 실시하는 등 여러 안정화 조치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1258년 이후 몽골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회자를 계속 발행하였고 이는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1264년 무렵에는 회자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했던 각종 보완 제도마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후에도 남송은 통화 질서를 정상화하지 못한 채 전쟁을 지속하였고 1276년 수도 임안(항주)이 함락되고 1279년 남송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회자를 중심으로 한 송나라의 지폐 체제도 사실상 붕괴하였다.

4.2 몽골의 지폐 활용

몽케 칸은 몽골 제국 내 화폐체계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 안정과 통치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했다. 칭기스 칸은 금나라의 화폐제도를 차용하여 교초(交鈔)를 만들었다. 1227년에 귀금속과 비단을 담보로 한 교초 사용을 처음 인가한 이후 지폐는 점차 사용되었으나 발행이 불규칙하고 과도하게 이루어져 화폐 가치 하락 문제를 낳았다. 몽케 칸은 1253년에 지폐 발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교초제거사(交鈔提舉司)를 설치하였다. 이 부서는 과잉 지폐 발행을 막아 화폐의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동시에 몽골은 각 지방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화폐의 명칭과 중량 단위는 존중되되 수케라는 보편적 가치 체계를 확립해 지역 간 통화의 호환성과 공통 기준을 마련하였다. 화폐 표준화 덕분에 몽케 칸 치세에서는 세금을 현물 대신 화폐로 징수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에서 관리들이 곡물, 화살, 비단, 모피, 기름 등 다양한 물품을 징수해 재분배하는 복잡한 행정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몽골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전역으로 팽창하였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와 행정비용이 필요하였다. 1258년 바그다드를 점령 등 연이은 정복전쟁은 막대한 전리품과 세수를 가져다주었고 몽골 제국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쿠빌라이 칸은 중국 북부를 장악한 뒤 경제를 통합하고 세금 징수를 효율화하기 위해 1260년 중통원보교초(中統元寶交鈔)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원나라를 건국한 뒤 지폐 사용을 더욱 확대하였다. 지폐는 금속화폐보다 대량 발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부가 군량미와 군수물자를 구매하고 병사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유용하였다. 또한 국가가 세금 납부 수단으로 지폐를 인정함으로써 화폐 수요를 유지하고 정부의 구매력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1263년부터는 세금 납부 방식도 은에서 지폐(보초)로 전환되었고 동전은 점차 사라져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원나라의 지폐 제도는 송나라의 교자와 화자 제도를 계승·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중국 내부에 머물렀던 송나라의 지폐와 달리 몽골 제국의 광대한 영토와 통일된 통치 체제를 바탕으로 훨씬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쿠빌라이 칸은 제국 전역의 상업 활동과 세금 징수를 효율화하기 위해 보초를 적극적으로 발행하였으며 이를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화폐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보초는 무거운 금속화폐에 비해 운반이 편리하고

대규모 거래에 적합하였다. 보초는 원나라가 지배하는 광범위한 몽골 제국 전역(고려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지역까지)에 통용되었다. 몽골 제국의 평화(Pax Mongolica) 아래 동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보초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의 상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비록 국제무역의 최종 결제는 여전히 금과 은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원나라의 지폐 제도는 광대한 지역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종이 화폐를 유통시킨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유럽의 지폐 제도 발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금융제도였다.

몽골 제국 내 일부 귀족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소식은 서구에 전해졌고 유럽 군주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계산을 불러왔다. 유럽은 이슬람 국가와의 오랜 전쟁 속에서 몽골인을 잠재적 동맹으로 삼으려 했다. 1245년 프랑스의 루이 9세는 도미니코회 수도승을 페르시아에 파견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서구와 몽골 간 사신 교환이 이루어졌다. 유럽은 페르시아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지리와 주민 생활에 대해 그 전보다 훨씬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13세기 말 중국을 방문한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뽕나무 껍질로 만든 지폐가 제국 전역에서 널리 통용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원나라의 지폐는 동판 인쇄 방식으로 대량 생산되었으며 액면가와 함께 황제의 관인과 옥새가 찍혀 있어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쿠빌라이 칸의 권위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 담당하던 신뢰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였고 강력한 국가 권력은 지폐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원나라는 지폐 사용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였다. 상인들은 동일한 지폐를 넓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훼손된 지폐는 조폐 기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지폐를 세금 납부와 군량 조달에 활용하였고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군량미 구매에도 사용하였다. 일부 시기에는 금과 은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되었다.

13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몽골의 국제상업질서 하에서 아랍인들과의 무역·상업·사상 교류가 절정을 이루었다. 아랍 세계를 거쳐 의학, 과학, 수학, 철학의 혁신이 유럽에 유입되었다. 이 시기에 나침반, 활자 인쇄술, 종이 제조법, 주판 등 중국의 기술이 서쪽으로 전파되었다. 아랍 상인들이 개척한 해상·육상 교통로는 유럽인들에게 비단, 다마스크 직물, 향료, 레몬, 고급 용단 등 동방의 사치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전까지 소박한 벽과 거친 바닥으로 만족하던 유럽의 군주와 성직자들은 점차 동양적 호화로움을 선호하게 되었다. 궁전에는 커튼과 쿠션, 자수 장식품이 놓였고 바닥에는 동양 카펫이 깔렸으며 등근 천장에는 금박 장식이 더해졌다. 인도와 중국에서 기원한 문물이 아랍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달되었고 몽골 제국의 상업망이 그 전달 경로를 크게 확장시킨 셈이었다.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전역을 하나의 교역권으로 통합하면서 고려 역시 국제 상업망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이슬람 상인과 이주민들이 원나라를 거쳐 고려로 들어왔다. 이들은 원 제국의 관리뿐 아니라 상인, 기술자, 가족 단위 이주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정 기간 자신들의 문화와 공동체를 유지하다가 점차 고려 사회에 동화되었다.

특히 이슬람 상인들은 오랜 국제 무역 경험과 뛰어난 재정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고려와 원나라를 연결하는 교역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몽골 황실의 공주들조차 이슬람 상인을 활용하여 남송 및 여러 지역과 인삼, 잣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거래하며 재산을 증식하였다. 능력 있는 이슬람 상인들은 안정적인 거래망과 자금 운용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몽골

지배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였다. 당시 개성과 벽란도 일대에는 무슬람이 운영하는 상점도 존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신료, 직물, 유리제품 등 서아시아와 이슬람의 다양한 상품이 고려에 유입되었다.

4.3 몽골의 지폐 쇠퇴

원나라의 지폐 제도는 한때 광대한 제국의 경제 통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과도한 발행으로 인해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재정 책임자 아흐마드 시기에는 전쟁과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지폐가 대량 발행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폐 공급을 제한하고 통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14세기 초에는 동전을 대체할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려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나라 금융 당국은 1340년대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화폐 정책을 유지하며 통화 가치를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원나라 말기에 들어서면서 자연재해와 재정 악화가 겹치며 화폐 체제는 다시 큰 압박을 받게 되었다. 1344년 황허강 유역의 대홍수로 광범위한 농경지가 침수되어 약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정부의 치수 사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어 1351년에는 허난과 산둥 일대에서 다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정부는 황허강 제방 보수를 위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으나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예산 상당 부분이 유용되면서 공사는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또다시 홍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재난은 곡물 생산량을 크게 감소시켰고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지폐 발행에 더욱 의존하였지만 이는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였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농민과 민중의 불만은 대규모 반란으로 폭발하였다. 1351년 4월 백련교 지도자 유복통은 농민 출신의 백련교도 한산동을 복속 휘종의

후손이라 내세워 송나라의 부흥을 선언하며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계획이 발각되면서 한산동은 처형되었고 이에 유복통은 같은 해 5월 군사를 모아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붉은 두건을 쓴 반란군은 홍건적이라 불렸으며 1351년 9월에는 병력이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어 1352년에는 원나라 토벌군 30만 명을 격파하며 세력을 확대하였고 1355년에는 한산동의 아들 한림아를 옹립하여 송나라 재건 운동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홍건적의 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나라는 전쟁 비용과 재난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로 보초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은 보유량이 부족해 지폐의 가치를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행량만 늘어나자

물가 상승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물가가 두 배로 오르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곡물 가격은 1340년경과 비교해 약 50배 상승하여 1석당 보초 1,000관에 달하였다. 생활 필수품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자 민심은 더욱 악화되었다.

원 정부는 1355년 은으로의 환전을 중단하였고 이는 보초에 대한 신뢰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화폐 가치의 붕괴와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홍건적의 세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중국 전역으로 반란이 확산되었다. 홍건적은 이후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혼란은 결국 원나라 멸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 5 】 국제통화(지폐)의 등장과 소멸

쿠빌라이 칸은 이러한 금나라와 송나라의 경험을 종합하여 1260년 제로통행중통원보교초(諸路通行中統元寶交鈔)를 발행하였다. 먼저 제로통행(諸路通行)은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통용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로(路)는 원나라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며 이 지폐가 특정 지방이 아닌 제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일 화폐임을 나타낸다. 중통(中統)은 쿠빌라이 칸이 즉위 초기에 사용한 연호이다. 원보(元寶)는 당나라 이후 국가가 발행한 동전이나 화폐에 자주 사용된 고액 은괴이며 "귀중한 보화" 또는 "국가가 공인한 정식 화폐"를 뜻하는 명칭이다. 대표적인 표준 은괴는 50냥 규모로 무게는 약 1.8~1.9kg에 달했다. 이 은괴는 양 끝이 위로 올라간 말발굽 모양(마제는, 馬蹄銀)으로 제작되어 보관과 운반이 편리하였다. 원보는 대규모 상거래, 세금 납부, 재산 축적 등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당시 고액 결제의 기준 단위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초(交鈔)는 송나라의 교자와 금나라의 교초에서 이어진 용어로 교환 증서 또는 지폐를 의미한다. 제로

통행중통원보교초 전체를 해석하면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는 중통 연간의 공식 지폐'라는 의미이다.

몽골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바그다드를 비롯한 서아시아의 부유한 도시들을 정복하며 막대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였다. 쿠빌라이는 은을 기반으로 한 보초를 발행하였으며 세금 납부와 상거래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국 전역의 경제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보초가 널리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전역의 교역로를 장악하고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그 가치를 보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영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청나라를 굴복시킨 뒤 금본위제를 국제 질서로 확립한 과정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통화는 단순히 화폐의 신뢰만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패권을 바탕으로 광대한 자원과 교역망을 장악한 국가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1821년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금 태환을 재개하며 금본위제로 복귀하였다. 영란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일정한 비율로 금과 교환될 수 있게 되었고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방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폐의 과다 발행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영국은 1844년 필 은행조례(Peel's Bank Charter Act)를 제정하였다. 이 법은 영란은행이 보유한 금과 은행권 발행량을 직접 연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은행의 발권 권한을 제한하여 영란은행이 사실상 독점적인 발권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었다. 1844년 이후 영국의 통화량은 금 보유량에 의해 제약받게 되었고 영국은 보다 안정적인 중앙은행 중심의 금본위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융질서의 확립은 단순히 국내 제도 개혁의 결과만이 아니었다. 제1차 아편전쟁 이후 영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배상금과 무역상의 특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영국의 국제수지와

재정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식민지에서 대규모 금광이 개발되면서 금 공급도 크게 증가하였다. 금본위제가 국제금융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이라는 귀금속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국의 압도적인 해군력과 재정 능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원나라가 강력한 군사력과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보초의 신뢰를 유지하려 했던 것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

제1·2차 아편전쟁 이후 영국은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국제상업질서를 재편하였다. 영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확대되면서 금본위제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졌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금본위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포르투갈(1854년), 캐나다(1867년), 독일(1871~1873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1873년), 네덜란드(1875년), 일본(1897년), 러시아(1897년) 등도 잇달아 금본위제를 채택하며 국제 통화 체계가 점차 금을 중심으로 통합되었다. 특히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과정에서 프랑스 은행이 금 태환을 일시 중단하면서 파리의

〈표 1〉 주요 패권국가의 통화 비교

구분	몽골의 보초	영국의 파운드	미국의 달러
유형	지폐	지폐	지폐
시점	1260년 (바그다드 점령 이후)	1844년 (아편전쟁 이후)	1944년 (2차 세계대전 말)
명목화폐 전환시기	1287년, 1310년	1914년, 1931년	1971년, 2008년
종점	1368년	1944년	-
발행기반	은	금	금
유통방식	무역결제 사용 강제	원자재 및 무역결제, 해상보험 사용 강제	석유결제 및 무역결제 사용 강제 환공격으로 달러 준비금 적립 강제
발행주체	원나라 조정	영국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사용목적	보초의 가치 상승	파운드의 가치 상승	달러의 가치 상승

자료: Guan, H., Palma, N., and Wu, M.(2024), The rise and fall of paper money in Yuan China, 1260-1368, The Economic History Review, 77(4), 1222-1250.

국제 금융 중심지 위상은 약화되었고 유럽의 금 결제와 현금 준비 기능은 점차 영란은행으로 집중되었다. 이 시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파운드화는 사실상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달러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산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되었고 전쟁 과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금 보유국으로 부상하였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달러를 금과 연동하는 금환본위제를 구축하였고 각국 통화는 다시 달러에 연동되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사실상 달러를 국제통화로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었다. 전쟁으로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큰 피해를 입은 반면 미국은 막대한 생산력과 금 보유량, 그리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상업질서를 주도할 수 있었다. 이후 미국은 국제 무역, 원자재 거래, 국제 금융시장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달러는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핵심 국제통화가 되었다. 1971년 금 태환은 중단된 이후에도 달러는 오늘날까지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몽골의 보초와 미국의 달러는 서로 다른 시대의 화폐이지만 탄생배경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두 화폐 모두 강력한 군사력과 패권적 지위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용되었고 초기에는 일정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점차 국가의 신용에 의존하는 명목화폐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원나라는 1260년 중통보초를 발행하면서 은을 기반으로 삼았다. 미국 달러도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달러는 금과 연동되었으며 사실상 세계의 금본위 통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보유한 막대한 금 준비와 압도적인 경제력·군사력에 기반한 것이었다.

1287년 쿠빌라이 칸은 중통보초의 가치가 하락하자 새로운 화폐인 지원보초(至元寶鈔)를 발행하였다. 일본 원정, 베트남 원정, 자바 원정 등 끊임없는 대외 전쟁과 방대한 행정 비용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된 것이 중통보초 가치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미국도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달러 공급이 급증하였다. 미국은 1971년 닉슨 쇼크를 통해 금 태환을 중단하였고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교환되는 화폐가 아니라 명목화폐가 되었다. 즉 1971년 이후 미국의 달러는 새로운 화폐가 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원나라와 미국은 각각 국제통화 체제를 구축한 지 약 27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 화폐 체제를 크게 개편하였다. 원나라는 중통교초에서 지원보초로, 미국은 금태환 달러에서 명목화폐 달러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전쟁 비용 증가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과도한 통화 발행이 자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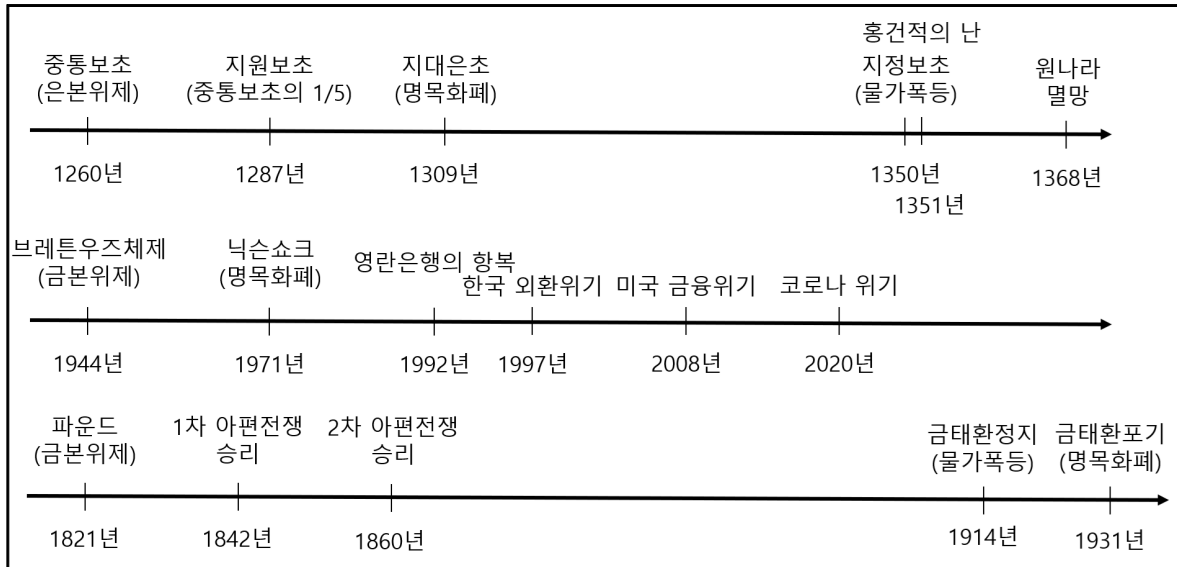
하지만 이후 보초와 달러의 변천은 다르게 나타났다. 원나라는 1287년 지원보초를 발행한 뒤 약 22년이 지난 1309년 새로운 지폐인 지대은초(至大銀鈔)를 도입하였다. 지원보초의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을 더욱 강조하여 화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잦은 전쟁과 재정 지출은 계속되었고 지폐 발행이 반복적으로 확대되면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막지 못했다.

반면 미국은 1971년 금 태환을 중단한 이후 약 20여 년이 지난 1992년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환투기 공격 과정에서 달러 체제의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른바 검은 수요일 사건에서 영란은행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동원했음에도 파운드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 실패했고 영국은 유럽환율메커니즘(ERM)에서 이탈하였다.

이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달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달러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대하였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국제결제와 외채 상환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달러는 사실상 세계의 준비통화로서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림 2〉 주요 패권국가의 통화 가치 변천사



1990년대에는 미국 달러가 영국의 파운드(혹은 원나라의 보초)와는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했다. 1992년 영란은행이 환투기 공격에 굴복하면서 파운드화 중심의 유럽 금융질서는 큰 타격을 입었고 달러는 냉전 종식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의 통화로서 그 위상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달러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은 대규모 달러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달러는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뿐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으로서도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대형 금융기관을 구제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미국 정부는 금융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였다. 미국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며 한국 등 미국 외 국가들에게 작은 정부, 자본시장 개방, 민영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

국이 위험해지자 국가주도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고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동시에 달러 체제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미국이 해외에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는 달러의 희소성과 가치를 유지하여 미국인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반면, 미국 내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대규모 통화 공급을 통해 달러의 희소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국 경제를 구제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달러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였고 달러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달러를 준비자산으로 대규모 보유하고 있던 각국은 보유 자산의 실질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에 직면하였고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미국은 달러 패권을 이용하여 자국의 위기 비용을 세계 경제에 전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사토시 나카모토

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필요에 따라 통화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존 화폐 체제의 한계를 비판하며 발행량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누구도 임의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제안하였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달러 중심 금융질서와 중앙은행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국은 대규모 재정지출과 통화 공급 확대를 실시하였고 이후 높은 물가상승이 발생하였다. 또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달러 결제망이 제재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각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이 확대되었고 금 보유량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2022년 이후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고 미국 달러의 가치는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는 과거 원나라와 영국이 경험했던 과정과 일정 부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원나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초를 기반으로 국제상업망을 유지했지만

전쟁 비용이 증가하면서 보초의 가치가 하락했다. 영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파운드를 기반으로 국제상업망을 유지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전쟁 비용이 증가하면서 파운드의 가치가 하락했다. 원나라의 보초와 영국의 파운드는 모두 국제통화로 사용되었지만 10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 영향력이 쇠퇴하였다.

미국은 현재까지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지속적인 통화 공급 확대, 그리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역사적으로 원나라의 보초와 영국의 파운드는 국제통화로 기능했으나 대규모 전쟁과 재정 부담이 누적되면서 화폐 가치와 국제적 위상이 악화되었다. 미국도 역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에 대한 지원은 미국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불가피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부채와 통화 공급이 계속 증가한다면 달러에 대한 신뢰와 구매력에도 부정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 6 】 결론

역사는 화폐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로마의 데나리우스, 송나라의 교자와 회자, 원나라의 보초, 영국의 파운드에 이르기까지 당시 주요 국가들의 화폐들은 모두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재정(귀금속) 등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재정 적자, 과도한 통화 발행이 누적되면서 화폐에 대한 가치는 낮아졌고 주요 국가들의 지위는 쇠퇴하였다.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화폐는 나라의 목숨줄이며 국민의 원기와 피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제공한 피와 땀이 섞여 있는 노동력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그 가치를 저장하고 보존하는 수단인 화폐는 매우 중요하다. 화폐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공부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축적한 부를 어떤 형태로 보존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역사 속 수많은 화폐가 흥망성쇠를 겪었던 것처럼 오늘날



의 통화 체제도 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이해하는 일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화폐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곧 개인의 재산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소금, 조개, 구슬, 가축, 차, 구리, 철, 금, 은 등 여러 물건이 화폐 역할을 수행했다. 그중에서도 금과 은은 희소성과 내구성, 휴대성 때문에 가장 널리 인정받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다. 이후 상업이 발전하면서 금과 은을 직접 운반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폐가 등장하였다. 지폐는 본래 금화나 은화에 대한 청구권 증서로 출발하였으며 그 가치는 발행 기관이 보유한 준비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몽골 제국의 보초는 제국의 상업과 조세 체계를 통합하는 데 성공하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지폐 가운데 하나가 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행되면서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영국의 파운드는 19세기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 통화로 자리 잡았으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막대한 재정 부담 속에서 금 태환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국제통화의 지위도 점차 약화되었다.

오늘날 달러는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금보유량을 바탕으로 국제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달러가 누리고 있는 지위를 100년 이상 유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지속적인 통화 공급 확대, 그리고 국제질서의 변화는 달러 체제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시한 화폐의 역사적 문제의식을 통해 금과 비트코인이 지닌 의미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노동과 저축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현명한 자산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도연, 2004, 원간섭기 화폐유통과 보초, 한국사학보, 37-67
- 김산해, 2021, 최초의 역사 수메르, 휴머니스트
- 디터 쿤, 2015, 하버드 중국사 송 유교 원칙의 시대, 너머북스
- 리아콥트 아메드, 2010, 금융의 제왕, 다른세상
- 리처드 폰 글란, 2019, 케임브리지 중국경제사, 소와당
- 마르코 폴로, 2004, 동방견문록, 서해문집
- 마크 엘빈, 1989, 중국역사의 발전형태, 새론신서
- 버나드 루이스, 2010, 이슬람 1400년, 까치
- 송병건, 2017, 세계화의 풍경들, 아트북스
- 송인창 외, 2013, 화폐이야기, 부키
- 시오노 나나미, 2019, 로마인 이야기2: 한니발 전쟁, 한길사
- 쓰모토 히데토시, 2024, 히타이트 제국의 역사, 더숲
- 안재성, 2018, 풍요와 거품의 역사, 을유문화사
- 오카모토 다카시 지음, 강진아 옮김, 2023, 중국 경제사: 고대에서 현대까지, 경북대학교출판부
- 윌리엄 N. 피츠만, 2019, 금융의 역사, 지식의 날개
- 윌리엄 L. 번스타인, 2019, 무역의 세계사, 라이팅하우스
- 유길준, 2021, 알기 쉽게 번역한 서유견문, 박이정
- 이강호, 2023, 문명과 역사 ④ 돈, 이자, 그리고 문명, 월간조선, 202304
- 이희수, 2013, 이슬람과 한국 문화, 청아출판사
- 주동주, 2022, 수메르 문명과 역사, 종합출판범우
- 주원준, 2022,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잭 웨더포드, 2013, 칭기스 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사계절
- 찰스 P. 킨들버거, 2004, 경제강대국 흥망사 1500-1990, 까치
- 클라아스 R. 빈호프, 2015, 고대 오리엔트 역사 : 알렉산더 대왕 시대까지, 한국문화사
- 피터 L. 번스타인, 2010, 금,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다, 작가정신
- 피터 프랭코판, 2017, 실크로드 세계사, 책과함께
- 한중수, 2023, 페니키아 카르타고 이야기, 미지북스
- 한현수, 임종권, 2023, 역사와 과학, 인문서원
- Guan, H., Palma, N., and Wu, M., 2024, The rise and fall of paper money in Yuan China, 1260-1368, The Economic History Review, 77(4), 1222-1250.
- Marx, J., 1978, The magic of gold, Doubleday Books
- Pense, A. W., 1992,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denarius, Materials characterization, 29(2), 213-222.

